

▶ 공 지 사 항 ◀

● 선망 조상 및 인연 영가 백중 49일기도

3재: 7월 26일(일) 11:00am, 5재: 8월 9일(일) 11:00am

7재(회향): 8월 23일(일) 오전 11:00

새벽기도(5:00am): 무설전, 사시기도(11:00am): 관음전

● 2015 한미 청소년 불교문화 체험단 방문

▶ 일시: 2015년 8월 7일(금) - 8월 9일(일), 20명.

● 불타사 어린이 템플스테이

▶ 일시: 2015년 8월 14일(금) - 8월 16일(일), 20명.

● 8월 16일 불타사 제 54회 법등회의

▶ 기 도 동 참(7월 19일 - 7월 25일)◀

● 법등: 김미경 이재광 윤여원 장세환 김철수 김나모 김가림
정영교 김택영 김대성 김대유 김미경 홍정숙

● 인등·만등: 이현준 이현수 이현정 윤수인 윤수진 윤수민
김신아 김희상 김카일 J.T. Fisher Addie Fisher

● 백중기도: 김은숙

● 보 시: 자인화 포대보살 최종호 윤여원

● 공양: 박수관(대중공양), 자인화, 이문이(과일), 자인화(떡)

▶ 법회 및 기도 안내 ◀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30

● 불타 한글학교 :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30

● 영어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어린이 법회 : 일요일 오전 11시

● 청년(선우회) 법회 : 일요일 오후 2시

● 참선수행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불타합창단: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8시

● 회주: 현성스님

● 주지: 성향스님

시카고불타사 일요법회

불기 2559(2015)년
7월 26일 제 49호

4360 W. MONTROSE AVE., CHICAGO, IL, 60641 T:773-286-1551



施食(시식)

망자를 천도하여 극락정토에 왕생시키기 위해 재를 올리고 법식(法食)을 주면서 법문을 들려주고 경전을 읽어 주며 염불을 해 주는 의식 또는 스님에게 재식(齎食)을 공양하는 것과 아귀(餓鬼)에게 음식을 베풀어 먹이는 의식 등을 말한다.

그 유래는 『소아귀경(召餓鬼經)』에 아난존자가 길을 나섰다가 돌아올 때 갠지스 강가에서 아귀들이 불타 죽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 여쭙니 ‘다라니의 법식으로 그들에게 시식을 베풀면 모든 귀신들이 주림을 벗고 포만을 얻어서 해탈할 수 있다.’고 한 데서 연유한다.

일반의 재인 경우 그 의식절차는

먼저 사찰의 입구에서 죽은 이의 영가를 맞아들이는 시련(侍輦)을 하고, 먼 곳에서 온 영가에게 우선 간단한 다과를 대접하고 예불하게 하는 대령을 행하고, 다음으로는 영가가 세세생생에 걸쳐 생사업보의 때를 씻고 법문을 듣는 관육을 한다.

이어 시식을 통하여 법식을 받는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정토에 왕생시키기 위하여 천도재를 올릴 때, 또는 명절에 선망부모(先亡父母)나 일체의 고훈(孤魂)들에게 법식(法食)을 베풀고 경전을 읽어 주는 불교의식이다. 즉, 죽은 사람의 기일(忌日)에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올리는 불교식 제사이다.

관음시식(觀音施食)·전시식(奠施食)·구병시식(救病施食)·화엄시식(華嚴施食) 등의 구분이 있다. 관음시식은 선망부모 등의 친족의 제사시에 많이 행하고, 전시식은 일체의 고훈에게 제사시에 행한다.

구병시식은 병이 났을 때 병의 원인이 제사를 잘못 지낸 데 있다고 판단하고 선망부모 혹은 일체고훈에게 치병(治病)을 위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화엄시식은 관음시식과 대동소이하나 관음시식이 관음신앙을, 화엄시식은 화엄신앙을 바탕으로 두고 있음이 다르다. 출가자인 승려에 대한 제사는 시식이라 하지 않고 영반(靈飯)이라 하여 일반 속인의 제사와 구분하고 있다. 영반에도 종사영반(宗師靈飯)과 상용영반(常用靈飯)의 구분이 있다.

시식의 절차는 영혼을 불법도량(佛法道場)에 초청하여 불법을 듣게 하고, 또한 불교적 의미를 갖게 된 음식물을 먹게 함으로써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지닌다. 의식의 절차에는 독경·진언·염불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영혼이 듣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영가에 올리는 제사의례인 시식은 반드시 시식 전에 불보살에 귀의하는 일반 불교의식을 행한 다음 행한다. 이는 제사로서의 시식의 불교의식에 의하여 뒤에 수용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식을 행하는 장소는 불단이 아니라 하단(下壇) 또는 영단이라 하여 법당의 오른쪽 또는 왼쪽 자리에 마련한다. 제물도 불단의 공양물인 향·등·과일·차·쌀 등이 아닌 일반 음식들이다.

觀音施食(관음시식)

관음시식은 선망부모, 친속, 일체 고훈을 위해서 사명일(四明日 ; 불탄일. 성도일. 열반일. 백중일), 재일(齋日 ; 49재. 백일재. 忌日) 그 밖에 좋은 날을 택하여 행하며, 화엄시식은 관음시식과 마찬가지로 화엄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초하루나 보름에 간단히 의식을 집행한다.

망인의 제삿날과 명절날에 행한다. 재와 시식은 모두 망인에게 베푸는 의식이지만, 재는 망인의 천도를 위하여 불보살(佛菩薩)이나 명부시왕(冥府十王) 등에게 권공(勸供)하고 기원하는 의례이며, 시식은 망인에게 제사음식을 대접하고 불교의 법문을 직접 일러주고 경전을 읽으면서 염불하는 제사의례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 의식의 절차는 망인이 의지할 아미타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을 모시는 거불(擧佛)에 이어, 망인에게 법문을 베푸는 착어(着語), 영가로 하여금 법문을 듣고 지옥을 벗어나게 하는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 등을 독송한다. 그리고 불보살을 청하여 망인이 법식(法食)을 베풀어 받았음을 증명하게 한 다음, 망인이 베풀어 받는 제사음식이 법식이 되도록 하는 변식진언(變食眞言)·시감로수진언(施甘露水眞言)·일자수륜관진언(一字水輪觀眞言)을 창하고, 이어서 망인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나무아미타불’ 십념(十念)과 장엄염불(莊嚴念佛)·후송염불(後誦念佛) 등을 행하고 끝맺는다.

이러한 의식은 불교가 재래의 제사의례를 수용함으로써 형성된 것으로서, 불교에 의한 우리나라의 조상숭배신앙의 한 형태이다.

